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내년도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오늘 1부, 2부 주일낮예배 후에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연말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가지겠습니다. 짧게 진행합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5. 이번 주 토요일 (12/26) 청소년당은 키르키스탄 목장(신동기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2/27) 주일간식담당은 엘리 목장(신경미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6. 2020년 성탄축하예배는 이번 주 12월 25일(금)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2월 20일	12월 27일	1월 3일	1월 10일
예배기도(2부)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이현호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오효근 권사	미정	
토요일청소(고정)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미정	미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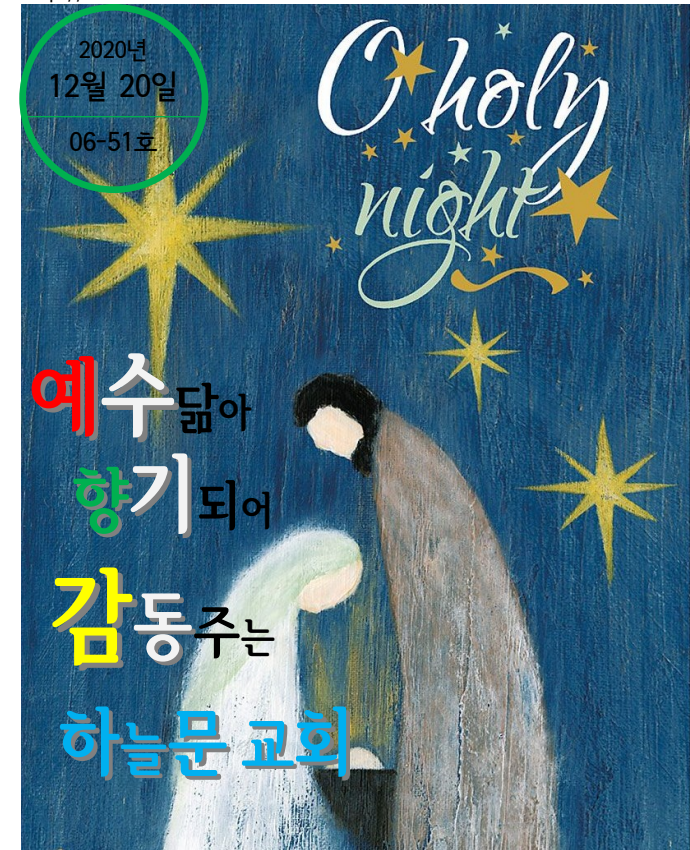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12장(통 112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선도장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요 11:17-30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8:11-17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1)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31)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지혜로운 자

계절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 지난 주에는 제법 눈다운 첫눈이 내렸다.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늦었다고 한다. 첫눈의 반가움도 잠시, 눈 치울 걱정이 태산 같다. 더욱이 겨울 한파가 겹쳐 아침, 저녁으로 한기가 들 정도로 춥다. 새벽기도회며 저녁기도회 때도 히터를 켜야 할 정도다.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로 힘들어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혹한의 겨울이라니.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속수무책이다. 그래서일까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 에베소서에도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5:15~16)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편에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모두가 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사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동일하게 말한다. 다만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은 넉넉하니 먹을 것도 마음껏 먹고, 입을 것도 마음껏 입어보고, 즐길 것 다 즐겨보고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쉽게 빠지곤 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뿐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단지 지금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내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유를 부리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아니다. 실패는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만, 실패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리석음이다. 즉,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모른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 한 해의 막바지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자.

Written by 허영진